

# 개항장 도시의 스포츠 이벤트와 민족의 지리학\*

## -일제시기 원산지역을 중심으로

오미일\*\*

- I. 머리말
- II. 전통 기념일과 脚戲大會
- III. 근대적 스포츠와 운동회
- IV.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와 식민도시의 공간성
- V. 맺음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제시기 원산지역의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개항장 도시의 공간적 분절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배의 공간적 구현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원산 조선인 사회의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단오절에 열리는 각회대회와 학교운동회, 그리고 시민운동회였다. 체육 전문 단체가 원산체육회(조선인)와 원산체육협회(일본인)로 양립되어 있었던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원산 스포츠 경기는 주최자뿐만 아니라 후원기관, 관람자까지 민족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원산 대회'는 全 元山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원산조선인대회'이거나 '원산일본인대회'였다. 원산지역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자의 운동장에서 '전원산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01).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한국근현대사).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식민도시의 공간 분절이란 상징적 명제를 가장 잘 보여준다. 즉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도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동회가 열리는 장소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절되어 있었다. 개교기념마라톤 코스 조차 민족별 공간의 경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적어도 스포츠를 통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민족주의적 경쟁이나 교류가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문 풍경이었다. 이 점에서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원산 지역 생활세계에 내재한 식민 지배의 공간적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개항장도시, 元山, 스포츠 이벤트, 운동회, 원산체육회, 로컬리티 역사 서술.

## I. 머리말

모든 역사는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간은 죽어 있고 고정되어 변화의 여지가 없는 대상으로 파악되어온 반면, 반대로 시간은 풍부한 생명력을 갖는 변증법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sup>1)</sup> 이러한 역사주의적 인식은 생활세계가 역사 발전 과정뿐만 아니라 인문지리의 형성과 공간의 사회적 생산, 지리경관의 끊임없는 구성 및 재구성 속에 위치한다고 보는 이론적 접근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sup>2)</sup>

로컬리티 역사서술이 유의미한 것은<sup>3)</sup> 바로 역사적 상상력에 덮혀 있는 지리적 상상력을 끌어내어 역사적이면서도 또한 지리적으로 맥락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역사가 발생하는 지점이거나 혹은 역사를 구성하는 공간의 해석적 의미를 맥락화하는 로컬리티 역사 서술의 관점에서 개항장도시의 식민지 근대성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구성되고 구현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일련의 작업 가운데 하나의 시도이다.

1) 콜린 고든, 홍성민 옮김,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서울: 나남출판, 1991, 101쪽.

2) 에드워드 소자 지음, 이무용 외 옮김,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22쪽 참조.

3) 로컬리티 역사 서술에 대한 시론으로 오미일, 「메타 역사의 재구성, 로컬 히스토리 쓰기」, 『로컬리티의 인문학』 31, 2013 참조.

이를 위해 실제적 장소에서 전개되어 생활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전통기념일의 스포츠 이벤트와 근대 스포츠 경기에 대해 탐구해보려고 한다. 스포츠·운동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일제시기 스포츠를 다룬 연구와<sup>4)</sup> 국가권력이 신체를 지배하고 배치한다는 관점에서 체육과 학교운동회를 다룬 연구들<sup>5)</sup>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개항장 도시 원산지역을 대상으로 전통 스포츠와 근대적 운동회의 주최·후원 세력, 유형과 전개양상 그리고 그 개최 장소의 역사성을 살펴봄으로써 식민도시의 공간성에 대해 검토해보려고 한다. 원산은 조선 후기 이래 지역적 유통망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객주를 중심으로 단오절과 같은 전통기념일 행사가 매우 활발했으며, 1880년 개항된 이후 선교사와 지역 유지들에 의해 설립된 많은 사립학교를 매개로 다양한 근대 스포츠가 유입되었던 곳이다. 신체를 접촉하며 부딪치고 대면해야 하는 스포츠 경기나 운동회가 원산 지역민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체화되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장면들을 포착해볼 것이다. 나아가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를 가로지르는 역사성, 그리고 식민주의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 접근해보려고 한다. 지역 단위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작업은 스포츠 정치학이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온 기존 연구의 충위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4) 대표적으로 천정환,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뽕을 차라: 스포츠 민족주의와 식민지 근대』, 푸른역사, 2010; 정예지,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연합운동회」, 『만주연구』 12, 2011; 이동진, 「간도의 조선인 축구」, 『동북아역사논총』 40, 2013을 들 수 있다.
- 5) 대표적으로 신주백, 「체육교육의 군사화와 강제된 건강」,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정근식·공제욱 편, 문화과학사, 2006; 김성학, 「근대 학교운동회의 탄생: 花柳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31, 2009; 김현숙, 「대한제국기 운동회의 기능과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48, 2010; 박환, 「근대 수원지역 학교운동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2014를 들 수 있다.

## II. 전통기념일과 脚戲大會

전통 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脚戲(씨름)<sup>6)</sup>였다. 각회대회는 음력 5월 단오날의 주요 행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추석 명절이나 신춘 무렵에 각회대회가 열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드문 예였고,<sup>7)</sup> 그 외에 가끔 특별한 기념축하 행사의 경우 이벤트로 열리기도 했다.<sup>8)</sup> 각회는 빠질 수 없는 ‘단오놀이’였다.

〈표 1〉 1910년대 원산지역 각회대회

	시기	주최기관	후원기관	개최장소	출처
1	1914. 음력 5.5	館橋洞 石隅洞 연합		정차장 뒤 모래사장	매일신보 1914.6.5
2	1914. 음력 5.6.	銘石洞		원끼미 山坪	同 1914.6.5
3	1914. 음력 5.6.	縉紳 李基鍾, 朴大奎, 金泰浩		南山 앞	同 1914.6.5
4	1914. 음력 5.7	객주 및 상점	원산상의소장 南廷善, 객주 남경선 등이 후원금 각출	博山 앞	同 1914.6.5
5	1918. 음력 5.6	上里 上洞		구 예배당 뒤 공터	同 1918.6.13
6	1918. 음력 5.6~7	物産客主		南山 蠶頭	同 1918.6.13

- 6) 씨름을 지칭하는 용어는 角力, 角抵, 脚戲, 相撲, 爭校 등 시대에 따라 다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각회란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곽낙현, 『매일신보』에 기재된 脚戲, 씨름 기사에 대한 고찰: 1920년~1945년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6-6, 2007, 3쪽). 그러나 매우 드물게 신문기사 광고에서 ‘원산씨름대회’라고 사용하기도 했다(「광고: 원산씨름운동대회」, 「中秋씨름運動大會」, 『동아일보』 1923년 6월 19일, 1925년 9월 21일). 여기에서는 자료에 나오는 용어대로 ‘각회’로 서술한다.
- 7) 1925년과 1931년 중추절에 각회대회가 열렸다. “(1925년) 8월 추석에 각회대회를 열기는 원산이 개벽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한다(「원산각회대회」, 『동아일보』 1925년 9월 20일; 「중추가절에 원산각회대회」, 『조선일보』 1931년 9월 19일). 신춘각회대회는 1925년 음력 정월 21~23일 사흘간 원산체육회 주최, 원산청년회와 원산노동회 후원으로 거행되었다(「元山脚戲大會」, 『동아일보』 1925년 2월 11일).
- 8) 대표적인 예를 들어 1928년 7월 浦下川의 改修起工을 기념하기 위해 협찬회 주최로 열린 축하대회에서 이벤트로 각회대회를 개최했다(「祝賀脚戲大會」, 『동아일보』 1928년 7월 8일).

<표 1>을 보면 1910년대 원산지역 단오날 각회대회는 대개 洞 단위로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오날에 지역 주민들이 동리 단위로 전통 놀이를 즐기는 차원에서 각회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또한 객주(상점)도 단오에 각회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동리 단위의 각회대회와 달리 원산 전 지역 주민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표 1>의 4, 6항 참조). 1914년 博山 아래에서 열린 각회대회는 원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觀光者로 인해 말 그대로 ‘人山人海’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객주들의 조직인 元山商議所 차원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상의소장 南廷善과 객주들의 釀出로 상금과 기타 부대 비용을 조달했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施賞係, 警護係 등의 부서를 두었다.<sup>9)</sup> 대회 우승자가 안변군과 북청군 주민인 사실을 보더라도 함경남도 인근 지역에서 이 각회대회에 참가하거나 觀戰하기 위해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각회대회 뿐만 아니라 부인들의 鞞韃(그네뛰기), 探景消懷 作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단오절의 원산지역은 “5일로부터 3, 4일간은 自古로 快遊에 赴하는 慣習의 지방”이 되어 수만여 명의 인산인해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sup>11)</sup> 표현의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단오절 풍경을 짐작하게 해준다. 좁게는 각 동리 단위로 넓게는 원산부 뿐만 아니라 府域 경계 너머 인근 지역민들도 참가하여 즐기는 각회는 단오절의 여러 행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였다.

<표 2> 1920년대 원산지역 각회대회

	시기	주최기관	후원기관	개최장소	출처
1	1920 음력 5.6-7	원산청년회	동아일보 지국	廣石洞 廣場	동아 1920.6.26
2	1921.음력 5.5.	원산리중계조합		廣石洞 운동장	동아 1921.6.10

9) 원산상의소는 1903년 8월 농상공부의 인가를 얻어 설립한 조선인 상인들의 조직이었다. 1910년 무렵 회장(史泰均) 부회장(李澤鉉), 회계, 사무원, 商議員, 평의원 등으로 직제가 구성되었다(西田常三郎 편, 『東朝鮮(一名 元山案内)』, 元山毎日新聞社, 1910, 93쪽).

10) 「脚戲大會」, 『매일신보』 1914년 6월 5일.

11) 「지방통신: 원산」, 『매일신보』 1914년 5월 27일.

	1921.음력 5.7	場村洞 시민		장촌동 樹亭	동아 1921.6.10
3	1922.음력 5.5~6	원산청년회	객주조합, 중개조합, 노동회, 동아일보지국	上洞 원산청년회 운동장	동아 1922.5.28, 6.19
4	1923 음력 5.4~5	館橋洞 尹洙源, 朴昌運			조선 1923.6.19
5	1925. 음력 1월 21~23	원산체육회	원산청년회, 원산노동회	上里 1동 同樂座	동아1925.2.11
6	1925. 음력 5.5~6	石隅洞 有志		석우동 뒷산	동아 1925.6.17
7	1925.음력 5.5.	有志 盧文麒 등 諸氏		관교동 고등 여학교 앞 광장	동아 1925.6.24
8	1925. 음력 8.16~17	원산청년회	조선, 시대, 동아 지국	上洞 청년회 운동장	동아 1925.9.20, 21
9	1926.음력 5.6~7	元山漁員相助會	동아일보지국	원산청년회 운동장	조선 1926.5.20; 동아 1926.6.4
10	1926.5.5~6			場村 松亭	동아 1926.6.8
11	1926.음력 5.5	관교동, 榮町, 석우동, 玉泉洞 연합		赤田橋 下 백사장	동아 1926.6.17; 조선 1926.6.17
12	1927.5.5.	석우동 유지 조화벽, 최중근, 김재욱, 장호섭, 김치연, 홍창순 외 10여 명		원산역전 광장	중외 1927.6.3
13	1928.음력 5.6~7	석우동		원산역전 광장	중외 1928.6.14; 동아 1928.6.20
14	1928.음력 5.6	上洞		上洞 청년회 운동장	중외 1928.6.14; 동아 1928.6.20
15	1928.음력 5.6~7	漁市組合		해안매죽지광장	중외 1928.6.14; 동아 1928.6.20
16	1928.음력 5.	場村洞		下場村	중외 1928.6.14
17	1928.음력 5.7	본정5정목, 관교동, 榮町, 玉泉洞 연합 대회		관교동	중외 1928.6.20
18	1929.7.6	浦下川改修起工 協贊會	원산시영회, 원산원영회		동아 1928.7.8
19	1929.음력 5.5	元山漁商組合		上洞 원산체육회 코트	조선 1929.6.3
20	1931.음력 5.5~6	남촌동, 북촌동	매일신보 지국	上洞 원산청년회 운동장	매일 1931.6.18, 6.25
21	1931. 음력 8.15~16	大元俱樂部(제1회 전조선각회대회)	동아, 조선일보 지국, 제이소방조	해안매죽지광장	조선 1931.9.19; 매일 1931.10.1
22	1932.음력 5.6~7	三千里 元山支社		해안매죽지	매일 1932.6.6
23	1932. 음력 8.17~18	대원구락부(제2회 전조선각회대회)	삼천리, 동아, 매일 지국	해안매죽지 광장	매일 1932.8.29
24	1933.	대원구락부		해안매죽지 광장	매일 1933.5.26

	음력 5.5~6				
25	1933. 음력 8.16~17	대원구락부(제3회 조선각회대회)	동아, 조선중앙 지국	해안매립지 광장	동아 1933.8.31; 조선중앙 1933.9.2
26	1935. 음력 9.7~9	대원구락부(제4회 조선각회대회)	동아 지국	場村洞 畜産市場	동아 1935.9.17, 10.6
27	1936.음력 5.5~6	本町5정목, 榮町	중앙, 조선, 동아 지국		동아 1936.6.20; 조선중앙 1936.7.3
28	1936. 음력 8.16~17	대원구락부(제5회 조선각회대회)	조선, 매일 지국	中里2동 해안 (三玉鐵工所 매립지)	조선 1936.9.24; 매일 1936.10.4
29	1937. 음력 5.5~6	원산체육회	대원구락부	해안동 5정목 미리미곶	동아 1937.6.11
30	1938. 음력 5.5~6	원산체육회	대원구락부	해안동 6정목 宋元鐵工所 인근	동아 1938.5.21

1920년대에 들어서 제한적이거나 비정치적인 사회단체 결성이 가능해지면서 각회대회의 주최기관에 변화가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1920년 결성된 원산청년회와 1924년 조직된 원산체육회 등의 사회단체가 각회대회의 새로운 주최자로 나서면서 洞里의 경계를 넘어 쏘 원산의 행사로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원산부민의 행사로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후원기관인 동아일보나 시대일보, 조선일보 지국 등 언론사의 홍보 광고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는 이들 단체의 주도세력 가운데 동아일보·조선일보·시대일보 등의 지국장이나 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래대로 洞 단위 혹은 동 연합의 각회대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다. 각회대회가 열린 마을은 주로 場村洞, 石隅洞, 館橋洞, 榮町이었다. 동 단위 혹은 동 연합 각회대회를 주도한 이들은 지역의 유지들이었다.<sup>12)</sup> 또한 원산지역 조선인 경제계를 대표하는 객주조합

12) 예를 들어 1921년경 장촌동시민각회회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임원진은 회장: 金參鉉, 부회장: 張仁洲, 시상부: 李次俊 이하 3인, 서기: 愼明晟 이하 1인, 심판부: 張翼珍 이하 5인, 경호부: 表元錫 이하 7인, 設備部: 李容昊 이하 8인, 應接部: 金燦文 이하 3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가운데 장익진은 해륙물산 객주로 이후 원산지역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는 객주조합의 조합장(1927, 1933)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원산상업(주) 창립위원(1929)·감사·이사(1931~1933), 명태조합 이사(1932), 元德漁業組合 指定仲介人(1932)이었고 상업회의소 평의원(1918~1920)·부회두(1927~1928), 부협의원(1926, 1930), 함남노동회 이사(1929), 학교비평의원

과 漁商組合 등의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각회대회 역시 종종 개최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대원구락부<sup>13)</sup> 전조선각회대회를 주최했다. 그 외에 원산체육대회와 三千里 元山支社도 각회대회를 개최하였다.

각회대회의 상금은 동 단위의 비교적 소규모 대회일 경우에도 1등에게는 大牛를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등에게는 中牛를 지급하고 3등에게도 소우나 광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액의 상금은 지역 경계를 넘어 원산 인근 郡民을 유인하기에 충분했다. 1920년 단오절에 원산청년회가 주최했던 대회(<표 2의 1항>나 1926년 관교동·영정·석우동·옥천동 등 4동 연합대회(<표 2>의 11항)의 우승자가 원산 주민 외에 북청, 함흥, 안변에서 원정 온 이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각회대회는 참가 자격이 원산 지역민에 제한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대중이 운집했던 것이다. 단오절의 각회는 시합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스포츠 경기의 성격도 존재했지만, 그보다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여흥을 즐기는, 전통사회에서 유래된 놀이에 가까웠다.

### Ⅲ. 근대적 스포츠와 운동회

#### 1) 학교운동회와 근대 스포츠의 학습

개항장 원산에는 1883년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元山學舎가 ‘鄉中父老’들에 의해 설립되어 일찍부터 학교 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했다.<sup>14)</sup> 따

(1927, 1930), 원산제2소방조 組頭를 지낸 지역 유력자였다. 김찬문은 자동차업에 종사하고 元德漁業組合 지장중개인(1932)이며 원산시영회 회원(1926), 원산시민협회 사업위원(1928), 학교비평의원, 함남노동회 이사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이용호는 1920년 9월 23일에 일어난 대구모 만세시위사건의 주모자였다.

13) 대원구락부는 원산지역의 쇠퇴를 우려한 조선인 유지들이 “원산의 향토를 死守, 世交 친분을 가일층 공고히하자, 상호부조를 힘써 하자”란 취지로 1931년 7월 초 조직했다. 원산청년회가 쇠퇴하자 회원들의 중론에 의해 청년회관을 대원구락부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1930년대 조선인 유지들의 대표적인 모임이었다(「元山有志가 大元俱樂部 창립을 결의」, 「청년회관을 대원구락부에 委讓」, 『매일신보』 1931년 7월 8일, 1932년 7월 5일)



라서 학교운동회도 1900년대 이전에 개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sup>15)</sup> 자료상으로 원산지역에서 학교운동회가 확인되는 것은 1908년이다. 이 해 5월 內里 사립학교에서 6백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춘기연합운동회가 열렸고,<sup>16)</sup> 11월 말에는 13개 학교가 참가한 추기연합대운동회가 열렸다. 남녀 학생 1천여 명이 참가하고 관람자가 人山人海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70세 노인이 경주를 하였다는 기사로 보아<sup>17)</sup> 학부모와 그 친척, 동리 사람들이 다수 참가하는 학교운동회가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지역 축제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6월에는 사립 春成學校와 光成學校, 공립 원산보통학교 연합운동회가 열렸으며, 운동회가 끝난 후 早婚의 폐단을 통박하는 연극이 상연되었다. 학생과 주민들이 대거 모인 운동회가 사회 계몽의 장으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원산지역 운동회는 한말 설립된 사립 학교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학교는 대개 기독교나 천주교 계통에서 경영하는 학교들이었다.<sup>18)</sup>

- 
- 14) 신용하, 「우리나라 最初의 近代學校 設立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0, 1974, 192~195쪽; 정재길, 「학교 근대교육의 起點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2·3, 1990, 103~120쪽. 원산학사의 교과목은 經書·兵書·物理·농업·양잠뿐만 아니라 법률·만국공법·지리 등 근대 학문을 교수했다.
- 15) 최초의 근대적 운동회는 1896년 5월 31일 관립소학교 學員들이 훈련원에서 연 것이라고 한다(최정환, 앞의 책, 2010, 94쪽).
- 16) 「元港運動」,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3일.
- 17) 「元山運動의 盛況」, 「元校運動」, 『황성신문』 1908년 11월 26일, 1909년 6월 10일. 1910년 6월경에도 사립 春成學校와 光成學校, 공립보통학교 연합운동회가 열렸고, 여흥으로 早婚의 폐단을 통박하는 연극이 개최되었다(「元校의 運動演劇」, 『황성신문』 1910년 6월 22일).
- 18) 1914년경 원산지역 사립학교로는 장로교계의 숙명여자학교, 培成學校(심상보통과)·進誠女學校(심상과·고등보통과)·保光學校·樓氏女子學校(1931년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로 이원화), 남감리교계의 光成學校(심상과·보습과) 등이 있었다. 保光學校는 1912년 10월 장로파교회의 중학교와 감리파교회의 중학교를 연합하여 양 선교회에서 함께 관리했다. 이후 聖書學校와 海星普通學校(천주교계) 등이 추가 설립되었다. 1937년 무렵에는 이들 학교 중 해성학교, 광명학교, 루씨여자보통학교, 진성여자학교만 유지되고 있었다(金二坤, 「元山港耶蘇教會內的 教育」, 『崇實學報』 1호, 1915년 1월, 107쪽; 『원산안내』, 1914, 37쪽; 金元鍊, 『元山要覽』, 元山要覽編輯會, 1937, 35~37쪽).

한편, 기독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에서도 매년 봄철이면 幼少年 대상의 운동회를 개최했다.<sup>19)</sup> 1921년 5월 장로교회와 남감리교회 연합으로 광석동 운동장에서 개최된 주일학교 운동회의 풍경을 살펴보자.

“원산 장로, 감리 양교회의 연합 주최로 5월 28일 춘계 幼年 주일운동회를 시내 광석동 운동장 녹음 속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더라. …운동회 정문에는 채색이 선명한 만국기와 홍백이 찬란한 차일은 바람에 날리어 운동회원을 환영하는데 남녀 학생 천여 명은 선생의 보호하는 아래 용감한 태도로 악대를 선두에 세우고 유쾌한 운동가를 합주하면서 시내를 순회하여 당당히 정문에 들어서자 벌써 구경하는 사람은 여러 천 명에 달하여 입추의 여지가 업는 중 정각이 되매 회장 李炳沃씨의 개회사와 찬송가와 기도가 끝나자…사립진성학교 녀학생의 체조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순서를 계속하여 사십여 종의 경기를 박수하는 소리 속에서 대성황으로 맞치고 조용한 기도로 폐회하였는데 당일 관람객 수천 명에게 무한한 환영의 박수갈채를 받은 곳은 保光校의 체조와 培誠校의 경주와 進誠女學校의 오월계의 과목과 信貞校 유치과 생도의 귀여운 유희이었으며 유희로는 고금의 풍속을 모방한 두 차례의 가장행렬이 잇섰다.……”<sup>20)</sup>

위 예문을 보면, 주일학교 운동회라고 하지만 교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립학교가 참여하여 학교운동회와 다름이 없었다. 특히 기독교회의 의례에 따라 찬송가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폐회하는 장면은 국가 의례로 시작하는 일반 운동회와 다른 점으로 주목된다. 일장기가 아닌 만국기가 필력일 수 있었던 것도 서양 선교사들의 영역인 사립학교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1923년 봄 장로교회 연합운동회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개최되었는데,<sup>21)</sup>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씨름대회나 윷놀이가 아니라 30여 종의 육상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인근 안변과 덕원읍내 학교에서도 참가하여 관중이 3천여 명에 이르렀고 당일 『運動時報』까지 발행했다는 사실로 보아 주일학교 운동회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컸음을

19) 「主日校聯合運動會」, 「主日校 연합대운동」, 「兩主日校運動盛況」, 『동아일보』 1920년 5월 8일, 5월 25일, 1921년 5월 31일.

20) 「원산 幼年의 聯合大運動會」, 『조선일보』 1921년 6월 1일.

21) 「主日校 운동회」, 『매일신보』 1918년 6월 13일.

알 수 있다.<sup>22)</sup>

학교운동회는 대개 9월과 10월에 각급 학교 단위로 일제히 개최되었다. 학제가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sup>23)</sup> 운동회도 민족별로 분리되어 열렸다. 간혹 여러 학교의 연합으로 열리기도 했는데, 연합운동회는 대개 사립은 사립끼리 공립은 공립끼리 열렸다.<sup>24)</sup> 운동회는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댄스, 체조 등도 실시하여 여흥을 더하기도 했다.<sup>25)</sup>

전체 재학생 중 절반 정도가 조선인인 원산공립상업학교에서는 야구, 정구, 농구, 축구, 마라톤, 유도, 검도, 遠泳 등의 스포츠를 체육시간이나 과외활동시간에 배웠다.<sup>26)</sup> 여름철이 되면 일주일간 松濤園 해수욕장에서 전교수영훈련대회를 열고 10킬로를 헤엄치는 원영 훈련을 실시했다.<sup>27)</sup> 그리고 겨울방학 때에는 전교생의 대다수가 소속된 유도부와 검

- 22) 「元山主日學校大運動」, 『동아일보』, 1923년 6월 15일; 「연합운동회 개최」, 「연합운동회 개최 속보」, 「주일학교대운동회」, 『조선일보』 1923년 6월 6일, 14일, 23일. 이 운동회 개최를 위해 회장, 총무, 施賞委員, 심판, 司令, 준비원, 경호원, 接賓, 위생, 통신, 회계, 設備 등으로 부서를 구성하여 준비했다(「연합운동회 개최속보」, 『조선일보』 1923년 6월 14일).
- 23) 1920년대 중반 공립학교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일본인 대상의 심상고등소학교와 尋常小學校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 학교로는 제일공립보통학교와 제2공립보통학교가 있었다. 중등 과정으로는 일본인 대상의 원산중학교와 원산공립고등여학교가 있었고, 일본인과 조선인 공학의 원산공립상업학교가 있었다. 지역 총인구 중 약 19%를 점하는 일본인의 경우 학생수가 훨씬 많아서 교육 혜택 면에서 조선인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정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감습소나 학원이 모두 조선인 대상이었던 점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한 처지를 나타낸다.
- 24) 사립학교 운동회는 保光·培城·進誠(장로교), 光成學校(감리교) 등의 각 학교별로 열리기도 했지만, 장로교 계통 학교의 연합으로 혹은 장로교와 감리교 학교의 연합운동회를 열기도 했다. 1927년 가을 공립 제일보통학교와 제이보통학교의 연합운동회가 해면매립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린 경우도 있었다.
- 25) 「樓氏女普運動」, 『조선일보』 1927년 10월 14일; 「元山樓氏女高普秋季運動會光景」, 『매일신보』 1931년 10월 20일.
- 26) 朴鐵男(22기), 「체육으로 명예 높여 제2의 人生 기폭제로」, 원산공립상업학교동창회, 『明沙』, 1996, 115쪽; 崔鍾暉, 「전국대회를 제패했던 元商 柔道」, 같은 책, 71쪽. 공립원산중학교에는 정규과목으로 武道科(유도, 검도)가 있었으며, 또한 방과 후 과외활동의 체육 종목으로 육상과 농구·정구 등의 구기종목, 그 외에 일본 부에인 유도·검도 등을 선택하여 학습했다.

도부의 강화훈련이 약 10일간 행해졌다.<sup>28)</sup>

유일하게 조선인 중등교인 사립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배구·농구·테니스 뿐만 아니라 야구까지 가르쳤다.<sup>29)</sup> 당시 여학교로는 드물게 야구를 가르친 것은 야구의 본고장인 구미계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였기 때문일 것이다. 루씨여고보의 학생들은 여름이면 오전 수업을 하고 전교생이 송도원에서 수영했으며, 겨울이면 교내 운동장 한쪽에 만든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다. 이들은 대개 상류층 집안으로 각기 전용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었다.<sup>30)</sup>

학교운동회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행사였다. 따라서 학부위원·학교비평의원과 같은 교육계의 주요 인사, 그리고 재정 후원을 할 수 있는 상인, 지주 등 유력자들이 운동회 비용을 지원했다.<sup>31)</sup> 그러나 교육열이 강

27) 朱東雲, 「나의 元商 시절의 追憶」, 『明沙』, 118쪽; 洪瓏植, 「靑雲의 꿈 깃들인 제의 고향 원산」, 같은 책, 136쪽.

28) 朴容珪, 「寒稽古 納會에서 받은 望外의 柔道賞」, 『明沙』, 103쪽.

29) 양혜식, 「루씨여잔」, 『常綠 樓氏高女100年誌』, 元山樓氏高等女學校總同窓會, 2003, 100~101쪽; 「회별대담(15회): 베이스볼의 원조 전설의 루씨야구단」, 같은 책, 146쪽. 이 학교는 1903년 미국 남감리교회 여성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는데 학교 건축비를 기부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교회 여성교회 회장 루시 커닝감(Lucy Armfield Cuninggim)의 이름을 따서 루씨 건닝금학교로 개명했다. 1921년 4년제 고등과를 설치했다.

30) 정도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사람들 원산에는 명문 루씨가 있었다」, 『상록』, 107쪽; 김호연, 「원산루씨고녀와 나의 처」, 같은 책, 106쪽; 오선혜, 「철없던 소녀들의 파티」, 같은 책, 112쪽; 「회별대담(15회): 베이스볼의 원조 전설의 루씨야구단」, 「회별대담(16회): 루씨의 마지막 졸업생」, 같은 책, 146쪽, 148쪽. 일본인 여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소수의 조선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원산공립고등여학교에서도 방과 후 활동으로 본인의 특성에 따라 궁도부, 배구부, 테니스부, 탁구부, 원예부, 琴韻(거문고부) 등을 선택하여 체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오후에 전교생이 송도원에서 수영을 실시했고, 운동기구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정구, 탁구 등의 구기 종목을 익힐 수 있었다. 특히 겨울이면 학교 앞 교정에는 스케이트장을, 학교 뒷산에는 송도원의 스키장 보다 더 큰 스키장을 마련하여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李相玉,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들인다」, 『松濤』, 원산공립고등여학교동창회, 1999, 42쪽; 李殷春, 「신앙은 은총의 선물」, 같은 책, 30쪽; 咸淑貞, 「媿母님 모시고 시집살이 알뜰히」, 같은 책, 32쪽; 洪福子, 「송도원 해변가를 걷던 낭만적인 감상」, 같은 책, 39쪽; 「元山高女에 스키場」, 『동아일보』 1927년 12월 5일).

한 전통적 분위기에 힘입어 노동회에서도 소액이나마 기부하고 또는 노동자들이 직접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역으로 부조하기도 하는 등<sup>32)</sup> 계층을 망라하여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 공립학교 운동회는 중추원 참여, 부협의원 등 식민지 권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관변 인물들이 내빈으로 참가하여 축하하는 등 부 당국과 관료·지역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sup>33)</sup>

## 2) 시민운동회와 스포츠의 대중화

근대 스포츠의 보급이 학교의 일상적인 체육과목과 주기적인 운동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고 관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은 시민운동회였다. 學制가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족별로 분리되어 열렸던 학교운동회와 마찬가지로 시민운동회도 조선인 사회와 일본인 사회에서 각기 별도로 개최되었다.<sup>34)</sup>

대중 주체의 시민운동회가 등장한 것은 문화통치로 제한적이거나 비정치적인 단체 결성과 대중 집회가 허용된 1920년대에 들어서였다.

〈표 3〉 원산 시민운동회(1920~1931)

	시기	주최기관	후원기관	개최장소	관람 인원/우승자	출처
1	1920.5.29. 제1회 원산시민대운동회	원산기독교청년회, 元山文友會	동아일보 지국	광석동 광장		매일 1920.5.18; 동아 1920.5.29, 6.3, 6.4
2	1924.10.25. 제2회 원산시민추계대운동회	원산체육회, 원산청년회, 객주조합, 포목상조합, 미곡상조합	동아, 시대, 조선 지국	제2보통학교 운동장	수만 명	조선 1924.10.13, 10.16, 10.25, 10.28; 동아 1924.10.28; 시대

- 31) 「元港運動」, 「是見是弟」,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3일, 1908년 12월 17일; 「元校 運動」, 『황성신문』 1909년 6월 10일.  
 32) 「광성학교 운동」, 『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1일.  
 33) 「元山公普運動會」, 『매일신보』 1921년 10월 17일.  
 34) 1931년 시민운동회의 경우 6천 미터 마라톤과 자전거 경주, 일반 릴레이 부분의 우승자는 모두 조선인이었지만, 8백미터 마라톤과 특정 릴레이의 우승자가 일본인인 것으로 보아 일본인들도 일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선수와 관람자는 조선인이었다.

						1924.10.12, 12.18
3	1926.5.9. 제3회 원산시민육상경기대회	원산체육회	원산시영회, 조선일보 지국			조선 1926.4.16
4	1926.10.3 원산시민육상경기대회	원산청년회	동아일보 지국	제2보통학교	수천 관중	동아 1926.9.16, 9.17, 9.26, 10.4
5	1927.6.18 해면 매립축하전원산시민대운동회	원산시영회	조선, 중의일보 지국	해면매립지 광장	선수 신철은 원산지역 외 전조선인에게 개방	중의 1927.5.2, 6월 12일
6	1931.5.31 원산 시민대운동회	원산시민협회, 여성조합, 곡물상조합, 객주조합, 미곡상조합, 잡화상조합, 물상조합,	원산체육회, 조선일보 지국,	제1보통학교 운동장	선수 3,4백 명	동아 1931.5.11, 6.3, 매일 1931.6.3
7	1936.6.7 원산 시민대운동회	대원구락부	동아일보 지국	上同		동아 1936.5.23

<표 3>에서 보듯이, 시민운동회는 1920년 5월 말에 처음 개최된 이후 1924년 10월(제2회), 1926년 5월(제3회), 1927년 6월, 1931년 5월, 1936년 6월경에 간헐적으로 열렸다. 시민운동회의 선수 자격은 대개 만 15세 이상이며 대회에 앞서 미리 신체검사를 했다.<sup>35)</sup>

주도층과 후원세력을 살펴보면, 먼저 제1회 시민운동회 주최 기관은 원산기독교청년회와 元山文友會였는데 시민운동회준비위원회의 위원<sup>36)</sup> 가운데에는 지역 경제계를 주도하고 있는 객주 출신 자본가들이 많았다. 李澤鉉(회장), 南百祐·洪鍾熙(부회장), 安廷協·趙炳喆(총무부), 崔光麟·남충희(사령부), 鄭雲駿·李正華(심판부), 安敦義(시상부), 정봉집(회계부) 등은 모두 객주조합원으로 무역회사나 창고운송회사를 경영하는 자본가들이며, 사회적으로 부참사·부협의원·학교비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지역 유지들이었다.<sup>37)</sup> 이외에 金相翊은 동아일보 원산지국 기자, 車亨恩은 半島

35) 「원산시민운동」, 『조선일보』 1924년 10월 16일.

36) 위원회는 회장: 李澤鉉, 부회장: 南百祐·洪鍾熙, 총무부: 安廷協·趙炳喆·金相翊·崔濟淳, 사령부: 康基德·최광린·金利鉉·남충희, 심판부: 鄭雲駿, 李正華 외 5명, 위생부: 金容浩·朴泰亨·車亨恩 외 3명, 시상부: 金源福·金處善·安敦義 외 3명, 경호부: 金永根·金秉綸·申彦國 외 19명, 接賓部: 朴昌菊·尹相弼 외 6인, 설비부: 金敬文·沈春澤·韓相泳 외 7명, 회계부: 林芝永·鄭鳳漸·徐泰鎬 외 3명, 기록부: 孫祚鳳·金相翊 외 6명으로 구성되었다(「元山市民秋季大運動會」, 『조선일보』 1924년 10월 13일).

37) 오미일, 「일제시기 조선인 자본가층의 결집과 ‘지역 번영’ 단체의 조직-1920년대

醫院 의사였다. 이들은 거의 모두 시민운동회 직후인 1920년 6월 창립된 원산청년회의 발기인이거나 간부였다.<sup>38)</sup>

1924년 가을에 열린 제2회 원산시민운동회의 주최기관은 원산체육회와 원산청년회, 객주조합, 포목상조합, 미곡상조합 등 5개 단체였다. 추진위원회의 임원진은<sup>39)</sup> 역시 대부분 객주 출신 자본가로 원산청년회와 원산체육회의 간부들이었다.

1927년 6월 18일 열린 원산시민대운동회는 中里 1동으로부터 上洞에 걸친 해면매축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시영회 주최로 열렸다.<sup>40)</sup> 조선인 마을 해안의 매축공사이기는 했으나 부 차원의 사업이므로 이 해면매립축하시민운동회의 임원진은 원산부운을 총재로 하여 元山市榮會 간부들로써 구성되었다.<sup>41)</sup>

1931년 5월의 시민운동회는 그동안 원산시영회와 元榮會로 분열되어 있던 조선인 부르조아층이 1928년 12월 통합기구로 조직한 원산시민협회의<sup>42)</sup> 발의에 의해 객주조합, 어상조합, 곡물상조합, 미곡상조합, 잡화

원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71호, 2015, 352~361쪽 참조.

- 38) 원산청년회 창립 시의 임원진은 안정협(회장), 남백우(부회장), 최광린(체육부장), 조병철(경제부장), 鄭鳳漸(회계부장), 李正華(평의장)이며 그 외 鄭雲駿·趙鍾九·安敦義는 발기인이었다.
- 39) 추진위원회는 회장: 이택현, 부회장: 안정협·조기주, 사령부장: 강기덕, 심판부장: 남백우, 경기부장: 남충희, 시상부장: 金秉洙, 총무부장: 金瓊植, 설비부장: 卓鳳實, 경호부장: 金容浩, 接賓部長: 尹相弼, 회계부장: 조병철, 통신부장: 金相翊, 위생부장: 차형은, 監視部長: 林虎英, 錄事部長: 趙宗구(각 부에 부원 수명)로 구성되었다.
- 40) 「원산시민대운동회」, 『중의일보』 1927년 6월 2일; 「운동회선수 참가는 무제한」, 『조선일보』 1927년 6월 5일.
- 41) 시민대운동회 준비위원회는 총재: 木村靜雄 원산부운, 부총재: 李澤鉉, 참모: 장의진, 김경식의 數人, 회장: 조기주, 부회장: 최수악, 韓致恒, 총무부 위원: 朴昌祚 남백우, 조종구, 김상익, 施賞部委員: 李鳳祿 李秉均, 盧紀萬 외 십여인, 錄事部委員: 朴敏龍, 尹致赫 趙炳夏 외 4인, 회계부 위원: 金錫五 金演栽 裴壽星 외 3인, 接賓部 위원: 李世模 李培根 외 10인, 사령부 위원: 金景五 吳秉珠 南辰熙 李種錫의 5인, 심판부 위원: 韓君弼 金大郁 외 6인, 選手部委員: 金用斌 安容禎 외 8인, 競技部委員: 崔光琳 趙和壁 외 9인, 경호부 위원: 李春河 崔仲軍 외 17인, 설비부 위원: 金燦文 林用興 외 10여인, 救護部委員: 韓景教 金容浩 외 5인으로 구성되었다(「매축준공 축하대운동회」, 『중의일보』 1927년 6월 6일).

상조합, 고물상조합 등 실업단체 연합으로 개최되었다. 대회 준비위원<sup>43)</sup> 가운데 趙基周(객주조합장, 원산상업(주) 전무이사), 盧紀萬(해산물 위탁 판매, 元山館(주) 사장), 魏禎鶴(원산제일어시장 경영주), 韓致恒(곡물무역상, 원산정미소), 張翼珍(해륙물산 객주, 객주조합장), 金景俊(元興商會, 상업회의소 부회두), 安敦義(객주), 崔光麟(객주조합원), 朴俊鎬(해산물상), 金楊根(부협의원), 金岡澤(원산관(주) 감사, 요리업) 등은 객주조합원이거나 여타 실업가였다.

시민운동회의 경기종목은 1924년 경우 성인 마라톤(元山全週 마라톤)과 학생 마라톤(元山半週 마라톤), 1천 미터 경주, 6백 미터 경주, 여자 자전거경기, 달려서 높이 멀리 뛰기, 장대 짚고 높이 뛰기, 원반 던지기, 포환 던지기, 합마 던지기, 자전거 徐行競技 등 육상이 주종이었다.<sup>44)</sup> 특히 ‘여자 자전거 경기’가 종목으로 채택된 점이 주목된다.<sup>45)</sup> “부인 경기에 활발하게 날뛰는 신진 여성들의 勇姿는 원산지역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여장부의 氣象”<sup>46)</sup>이란 기사와 같이 원산지역 여성들은 이제 운동회의 ‘觀光者’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선수로 활약하며 운동회의 주체로 나섰다. 여기에는 근대 교육이 일찍 보급됨으로써 여성의 체육활동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여학생과 부인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고 구르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지역의 사회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이다.

1927년 시민운동회의 경기종목은 주로 마라톤으로 여기에 자전거 경주가 부가되었다.<sup>47)</sup> 1931년 시민운동회의 경기 종목은 마라톤, 각 洞町

42) 오미일, 앞의 글, 2015, 341쪽 참조.

43) 대회 준비위원은 趙基周, 金相翊, 朴俊鎬, 李昌元, 盧紀萬, 魏禎鶴, 蔡洛奇, 朴容大, 金楊根, 金柄洪, 許承河, 李元河, 韓致恒, 金岡澤, 韓光洙, 全容斌, 張翼珍, 李弘俊, 裴舜鎬, 金景俊, 崔益用, 李芝明, 鄭學龍, 金鎮國, 李龍徽, 安敦義, 金眞珪, 崔英來, 崔光麟, 李在春 외 22명이었다(「원산은 준비」, 『동아일보』 1931년 5월 13일; 「실업단체 주최 원산시민운동」, 『조선일보』 1931년 5월 13일).

44) 「원산시민운동」, 『조선일보』 1924년 10월 16일.

45) 1931년 시민운동회에서도 ‘婦人 경주’ 종목이 진행되었다(「원산시민대운동회」, 『매일신보』 1931년 5월 16일).

46) 「大盛裡에 終幕된 원산시민운동회」, 『매일신보』 1931년 6월 3일.

47) 「원산시민운동 埋築竣工紀念」, 『동아일보』 1927년 6월 8일. 원산시민운동회이지만 대회의 경기 참가자는 원산 거주민에게 제한하지 않고 외지인에게도 허용했다.



릴레이, 각 단체 릴레이, 筆算·暗算 경주, 여자 50미터 달리기, 1백 미터·2백 미터·5백 미터·8백 미터·1천 5백 미터 달리기, 소학생 마라톤, 高跳(높이 뛰기), 상점방문 경주 등이었다. 그 외에 내빈 대상의 각종 경기도 있었다. 특히 기왕의 일반 시민운동회에서 볼 수 없었던 필산 경주, 암산 경주, 상점방문 경주 등의 독특한 경기는 여상조합·객주조합·잡화상조합 등의 상업계가 주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운동회의 경우 구기종목이 거의 없고 육상과 자전거 경주로만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sup>48)</sup> 구기 종목의 경우 별도의 전문 경기장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킬 공설운동장(府立 시민운동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sup>49)</sup> 또한 구기 시합의 경우 팀제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일반 시민이 선수단을 구성하기 어렵고 경기 규칙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민운동회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그 호응은 매우 뜨거웠다. 당시 일간지는 많은 군중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시민운동회의 광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관람하기에 편익한 자리를 선점하라고 狂波와 가티 모혀드는 群衆은 東으로 西으로 南으로 北으로 또 一方으로 帆船과 蒸氣船을 타고 모혀드러 刹那 사이에 數萬을 算만치 人山人海를 일으키는 중에도 부인관람석은 어지간히 질펀질펀하얏고 場內의 좌우양편에 長蛇陣을 벌인 大會本部와 男女의 來賓席, 元山各團體席 各學校學生席을 合하여 四五十個의 천막과 운동장 내외의 海面 일대로 鷹行과 가티 내려단 數千의 電燈만 하야도 一般觀覽者의 眼目을 瞭然케 하얏다....”<sup>50)</sup>

48) 때문에 1926년 10월에 열린 시민운동회는 그 명칭을 아예 ‘전원산육상경기대회’라고 붙였다.

49) 원산부에서는 1926년부터 공설운동장 설립을 계획하고 우선 1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1927년도에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자 원산체육협회(일본인 단체)를 비롯하여 각 청년단들이 ‘운동장완성실행회’를 창립하고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1928년 11월 공설운동장의 일부를 개장하게 되었다(『원산공설운동』, 『조선일보』 1926년 7월 17일; 『원산의 청년단체 분기』, 『매일신보』 1927년 3월 9일; 『원산공설운동장』, 『동아일보』 1928년 11월 16일).

50) 『盛況을 豫期하는 원산시민운동회』, 『중의일보』 1927년 6월 21일.

“...出場選手 총 삼사백 명에 달하여 운동회 역원만도 백여 명이 동원되어 당일의 운동회를 참관하려 모으는 사람은 일은 아참부터 新綠의 南山 全面에 彩色 옷을 입히리만큼 實로 인산인해를 싸엇었다. ...특히 수백 원의 巨費로 편성하였다는 北村洞의 假裝行列隊는 樂隊 先頭로 맑은 아참공기를 擾亂케 하며 全市를 一週하야써 더욱 異彩를 도도앗으며 婦人競技에 活潑이 날뛰는 新進女性들의 勇姿는 北鮮이 아니면 보기 드문 女丈夫의 氣象이었다. 館橋洞, 南村洞, 北村洞의 기운찬 應援隊며 본보지국과 松鶴館의 개인응접대도 萬綠點紅의 一輻이었다...”<sup>51)</sup>

시민운동회가 열리는 매립해안 광장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배를 타고 해안 쪽에서 모여드는 광경, 뻑뻑한 부인관람석과 남녀 내민석, 각 사회단체와 학교의 수십 개의 천막 시설들, 운동회 시작 전에 가장행렬대와 악대의 시내 일주로 고양된 분위기와 각 동 응원대의 맹렬한 기세는 운동회 기사 마다 등장하는 상투적인 ‘인산인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후원을 맡은 언론사 지국은 시민운동회의 경기 일정과 프로그램, 대회 진행과 경기 상황을 보도한 호외나 <時報>를 발행하여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운동회 참가에 일조했다.<sup>52)</sup> 각종 경기뿐만 아니라 여흥놀이가 가미되어 군중들을 ‘抱腹絶倒’케 할만큼 흥을 돋우는 시민운동회는 지역사회의 축제였다.

### 3) 원산체육회와 전문적 스포츠 경기의 주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운동회는 학생들이 체육시간과 방과 후 특별활동을 통해 단련하고 익힌 기량을 겨루는 대회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행사였다. 시민운동회는 대중적인 육상종목과 자전거 경주를 위주로 여흥놀이가까지 더해져 대중을 위한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51) 「大盛裡에 終幕된 원산시민운동회」, 『매일신보』 1931년 6월 3일.

52) 1924년 가을 시민운동회 때 개벽 지사와 조선·시대·동아일보 지국 기자들은 대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보도하기 위해 당일 「時報」를 함께 발간하였고, 1927년 6월에는 중외일보 지국에서 시민운동대회를 보도한 신문 수만 매를 관람자에게 무료 배포하였다(「원산시민운동 대성황으로 진행」, 『동아일보』 1924년 10월 28일; 「원산시민운동회」, 『조선일보』 1927년 6월 21일).

여기에서 나아가 지역 스포츠의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단체가 설립되어 전문적인 스포츠 경기를 주최하고 후원했다. 1924년 10월 원산체육회 창립총회가 불교포교당 내에서 원산청년회 회장 趙鍾九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일본인 측에서는 이미 1920년 5월 “체육과 사상의 堅實을 圖하여 각종 운동을 장려하며 또는 원조함으로써 목적”하는 원산운동협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sup>53)</sup>

원산체육회를 조직한 이들은 원산청년회의 주요 활동가였다. 이들은 조선일보·시대일보·개벽 지사의 지국장이나 기자 등 지식인 또는 지역 유력자였다.<sup>54)</sup> 강령은 “①인류애에 기인한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此

53) 원산운동협회는 1925년 원산체육회로 개칭되었다(오미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사회와 지역 단체-원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4, 2015, 351쪽).

54) 창립 간부진은 회장: 康基德, 총무부장 金相翊, 經理部長 南圭(奎)彦, 사교부장 趙鍾九, 도서부장 元泰允, 육상경기부장 金星, 야구부장 李吳甲, 축구부장 金鐵煥, 정구부장 金昌煥(漢), 음악부장 崔仲善 등이었다(「원산체육회 창립총회의 경과」, 『조선일보』 1924년 10월 3일; 「체육회창립총회」, 『시대일보』 1924년 10월 4일).

강기덕은 춘성학교 졸업 후 경성에서 보성전문학교 재학 중 3.1운동에 참여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후 시대일보 원산지국 고문·지국장(1924~1927), 루씨여고보 학부형회 부회장, 조선민흥회 준비위원(1926)으로 활동했다. 1926년 설화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6개월형을 살았던 대표적인 지역운동가다.

김상익은 백산무역주식회사 감사(1919), 원산매일신문사 元山里支局長, 동아일보 원산지국 총무겸 기자(1922), 개벽지사장(1924)으로 활동했고, 문화인쇄소를 경영했다. 원산공립보통학교 졸업생교우회 간사(1917), 원산청년회 학예부장(1922), 원산여자청년회 고문(1920)으로 활동했다. 1920년 원산설목수양단 연설회에서 연설한 내용으로 검속되기도 했고, 같은 해 9월 만세사건 주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살았다.

조종구는 원산객주조합 이사, 객주조합 금융부 이사(1926)로 원산청년회 부회장·회장(1921, 1922), 조선청년회연합회 위원(1922),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1923), 원산노동회 敎務部長(1923), 東京震災朝鮮人救濟會 위원(1923), 조선일보 지국장(1924), 원산고아원장(1931), 함남노동회 이사(1929), 元山漁港設置期會 위원(1930), 부협위원(1930)으로 활동했다.

원태운은 시대일보 원산지국장 겸 기자, 원산기독교청년회 총무(1920), 원산점원운동회 준비부장(1921)이며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었다(章勳夫, 『大正十二年統計年報』, 원산상업회의소, 1924).金星은 시대일보 원산지국 총무 겸 기자였다. 창립 간부진은 1925년에 改選되었는데, 회장이 姜勝喆로 교체되고 신설부서인 경리부

를 사회에 보급케 할 것 ②智德을 겸비한 권위 있는 체육단체 되기를 期圖할 것 ③本會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절대 단결을 力行할 것”이었다.<sup>55)</sup>

창립 초기에는 육상경기, 야구, 축구, 정구 등의 스포츠 종목별로 부서를 두었으며 강령에서 제시한 “智德을 겸비한 권위 있는 체육단체”가 되기에 필요한 음악부와 도서부도 두었다. 이후 “조선 청년 일반에게 유도술을 보급하기 위해 유도부를 신설하고” 유도장을 개설했다.<sup>56)</sup> 또한 1925년 육상경기부에 스케이트 종목을 신설하고 원산청년회 운동장 6백여 평에 빙상운동장을 마련하여 동계 운동을 장려했다.<sup>57)</sup> 원산체육회는 “스케이트에 한해 전력 연구”하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는 원산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고려할 때 지역적이면서도 전국적인 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1936년 會의 부흥을 시도하면서 씨름부를 새로 설치한 점도 주목된다.

원산체육회는 창립되자마자 스포츠 경기를 연속으로 주최했다.<sup>58)</sup> 먼

장에 卓鳳實이 선정한 것 외에 그대로 유입되었다(『원산체육회 총회』, 『동아일보』 1925년 10월 4일).

55) 『원산체육회』, 『동아일보』 1924년 10월 4일; 『원산체육회 창립총회의 경과』, 『조선일보』 1924년 10월 3일.

56) 『유도 장려』, 『유도부 신설』, 『동아일보』 1925년 3월 5일, 9월 21일. 수강료로 월 50전을 받았으며 교습 강사는 유도부장 宋廷權이었다. 1933년과 1936년 원산체육회의 부흥 쇄신 때 부서 조직에 유도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57) 『원산체육회 ‘스케이트’신설』, 『시대일보』 1925년 11월 27일.

58) 원산체육회 이외에 원산청년회, 원산기독교청년회, 원산소년회도 체육부를 두고 전문적인 스포츠 경기를 주최하고 후원했다. 대표적인 예로 원산청년회는 1922년 10월 말 동아일보 원산지국과 신생활사 원산지사의 후원을 받아 이들에 걸쳐 원산개인정구대회를 개최했다. 1924년 5월에도 원산청년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의 후원으로 청년회 앞 운동장에서 보통학교와 소년회 학생들의 정구대회를 개최했다. 기독교청년회 체육부는 거의 매년 소년척후대,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지국 등 각 사회단체나 언론사의 후원을 받아 합남소년소녀정구대회(관북소년정구대회), 전원산여자개인탁구대회, 관북탁구대회 등을 주최했다. 1919년 8월 지역유지들에 의해 조직된 원산소년회도 소년을 대상으로 한 운동회를 매년 개최했다. 소년운동회의 참가자적은 15~19세의 소년으로 마라톤과 육상경기가 주요 종목이었다(『원산정구대회 개최』, 『동아일보』 1922년 10월 27일; 『各小學生庭球』, 『庭球後報』, 『조선일보』 1924년 5월 20일, 5월 22일).

저 1924년 11월에 제1회 여자정구대회를 개최했다.<sup>59)</sup> “절기와 사조의 변화에 따라 여자의 운동열도 점점 맹렬”해지는 분위기에서 “관북 일대의 여자의 체육 발달과 운동열을 장려”하고자 여자정구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sup>60)</sup> 학교 체육을 통해 정구는 이미 여학생의 주요 스포츠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지만,<sup>61)</sup> 대회장에 남성의 입장은 금지되어 있었다.<sup>62)</sup> 이 정구대회는 1925년에는 ‘함남여자정구대회’로, 1927년에는 ‘관북여자정구대회’란 명칭으로 개최되었다.<sup>63)</sup> 실제 원산지역 내 여자중등학교 경기였으나 함남, 관북 대회로 지칭한 것은 대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또한 원산체육회는 1924년 11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개벽잡지사 원산지국과 원산소년회 등 5개 단체의 후원을 받아 이들에 걸쳐 제2회 관북축구대회를 개최했다.<sup>64)</sup> 특히 조선체육회 간사 鄭寅昌을 심판으로 초빙함으로써 전문적인 스포츠 경기의 격식을 갖추려고 한 점이 주목된다. 관북축구대회는 1923년부터 시작되어 언론사 지국의 후원 하에 함경도 각 지역의 청년단과 소년단이 참가하여 거의 매년 개최되었다.<sup>65)</sup>

59) 「여자정구대회」, 『시대일보』 1924년 11월 7일; 「원산여자정구」, 『동아일보』 1924년 11월 11일. 이 대회는 개벽사, 시대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원산지국이 후원했다. 대회 장소는 山祭峰 아래 樓氏女子普通學校였으며 참가선수는 모두 60명이었다. 우승자가 원산공립고등학교 桶口池田 便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 참가도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60) 「원산에 개최될 關北女子庭球」, 『매일신보』 1927년 9월 22일.

61) 동아일보사와 매일신보사에 의해 각기 全鮮女子庭球大會가 개최되고 있었다. 매일신보사 주최 정구대회에서는 원산 선수단(원산여자고등보통학교)이 경성여자고보 선수단을 누르고 우승할 정도로 원산의 정구 수준은 높았다(「경성여자고보군마참내 元山軍에게 패했다」, 『매일신보』 1925년 5월 19일).

62) 「원산여자정구」, 『조선일보』 1927년 9월 14일.

63) 「함남여자정구」, 『동아일보』 1925년 9월 18일; 「원산여자정구」, 『조선일보』 1927년 9월 14일, 9월 19일; 「원산에 개최될 關北女子庭球」, 『매일신보』 1927년 9월 22일.

64) 「關北蹴球大會 今 二十二日부터」, 「關北蹴球大會」, 『시대일보』 1924년 11월 22일, 25일

65) 대회 경비는 매년 기부금과 참가회비(청년단 5원, 소년단 3원)로 충당했다. 원산체육회는 1925년 11월에 열린 제3회 관북축구대회도 시대, 조선, 동아일보 지국의 후원 하에 주최했다. 참가 선수는 청년단과 소년단으로 나뉘었는데 소년단의 참가

〈그림 1〉



출처: (좌) 「元山 스키장의 女學生들」, 『매일신보』 1928년 1월 26일.

(우) 元山公立高等女學校同窓會, 『松濤』, 1999, 145쪽.

비고: 뒤에 멀리 보이는 건물이 원산공립고등여학교임.

원산체육회는 매년 가을이면 주로 마라톤을 경기 내용으로 하는 육상 경기대회를 개최했으며,<sup>66)</sup> 빙상경기(스케이트대회)와 스키대회 같은 동계 스포츠도 개최했다.<sup>67)</sup> 특히 1929년 2월 송흥리에서 열린 원산스키대회는 조선인 최초의 스키대회로,<sup>68)</sup> 조선교육협회에서 활동사진반을 파견하여 경기 상황을 찍어서 각지에 스키 선전을 할 정도로, 이 대회는 당대 스포츠계의 ‘사건’이었다. 이미 1927년 12월 교복 치마를 입은 원산공립고등여학교 학생들이 스키를 타는, 어색하면서도 이색적인 풍경이 『매일신보』에 게재될 정도로(<그림 1> 참조), ‘원산의 스키’는 대중

자격은 신장이 5척 2촌(157센티미터)으로 제한되었다. 제5회 관북축구대회는 조선 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 지국의 후원으로 1927년 5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광고: 第三回關北蹴球大會」, 「광고: 제7회 관북축구대회」, 「함경관: 12년의 역사를 가진 원산체육회의 堅固」, 『동아일보』 1925년 11월 14일, 1933년 11월 23일, 1934년 1월 12일; 「第五回關北蹴球會」, 『중외일보』 1927년 5월 16일; 「제9회관북축구대회 개최」, 『매일신보』 1936년 12월 8일).

66) 「원산체육회 주최 육상경기 개최」,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7일.

67) 「광고: 제1회 全元山水上競技大會」, 『시대일보』 1925년 1월 10일. 주최는 원산체육회였고 원산매일신문사와 시대일보원산지국이 후원했다. 또한 원산스케이트를 럽도 1926년부터 원산스케이트대회를 해안 빙상에서 개최했다(「원산 빙상경기」, 『조선일보』 1927년 2월 15일).

68) 「조선 최초의 스키대회」, 『매일신보』 1929년 2월 4일. 원산체육협회는 1927년 2월 송흥리에서 최초의 조선스키대회를 개최했는데, 1930년부터는 신설된 新豊里 스키장에서 열었다(「원산에 스키대회」, 「원산 스키대회」, 『조선일보』 1927년 2월 3일, 1931년 2월 11일).

의 이목을 끌었다. 여름에는 송도원이나 명사십리가 해수욕객을 불러들이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겨울에는 삼방이나 송흥리가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공간이 되었다.<sup>69)</sup>

원산체육회는 1927년 5월 종래의 회장제를 위원제로 변혁하고 회원 정리를 단행했다.<sup>70)</sup> 이는 지역 운동계의 상황 즉 원산청년회의 주도세력이 부르조아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혁신 청년’들로 교체되면서 회원 가입 연령을 낮추고 또한 회장제를 위원제로 개정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sup>71)</sup> 위원제로 변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1933년 10월경 부흥임시총회를 열고 간부진을 새로 선출하여 진용을 개편했다.<sup>72)</sup> 회원 150명의 회비와 기본금의 이자, 기타 수입으로 운영했으나<sup>73)</sup> 재정이 어렵자, 1936년 6월경 체육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sup>74)</sup> 부흥 이후 첫 사업은 여태껏 자금 부족으로 실행

69) 예를 들어 용산철도국에서는 매년 동절기 운동으로 스키를 장려해왔는데, 1930년 1월 제1회 스키대회를 경원선 三防水 부근 雪原에서 개최했다(「처음으로 열린 스키대회」, 『동아일보』 1929년 12월 27일).

70) 「체육회 혁신」, 『동아일보』 1926년 5월 9일.

71) 「元靑十二名除名」, 「원산청년회 위원제로 변경」, 『조선일보』 1926년 3월 12일, 5월 9일. 위원의 면면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초기 체육회를 주도했으며 청년회 혁신과정에서 배제된 조종구가 그대로 유입된 것으로 보아 주도층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72) 「원산체육회 부흥임시총회」, 『동아일보』 1933년 10월 21일; 「원산체육회 부흥총회」,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21일. 이사는 金仁洙, 朴弘範, 金河榮, 金亨俊, 千一南, 金福山, 朴長星, 魏煥, 張君文, 李善圭, 李昌俊, 金昌河, 林輔均, 朴成鶴, 감사 河榮洛, 徐成杓, 金希俊 등이었다.

73) 「합경관: 12년의 역사를 가진 원산체육회의 堅固」, 『동아일보』 1934년 1월 12일. 또한 시대일보 원산지국은 도서부장 원태운의 개인경영이었는데 이를 승계 받아 체육회에서 직영으로 경영했다. 따라서 원산체육회에서 각종 운동회나 경기 개최 시 후원과 홍보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본보 원산지국移營」, 『시대일보』 1924년 11월 21일).

74) 「원산체육회 부흥」, 『조선중앙일보』 1936년 7월 12일. 이 시기 체육회의 쇄신과 부흥을 이끌어난 인물은 申泰壽, 金閔澤, 韓泳奭이었다. 그리고 기부금을 낸 유지들 중심으로 임원진이 개편되었는데, 회장: 위정학, 부회장: 金商澤, 金相翊, 총무: 韓泳奭, 서무: 金正浩, 회계: 李濟學, 이사 洪鍾祥 외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체육부서로는 정구부·야구부·축구부·육상부·수영부·씨름부를 두었다.

하지 못했던 명실상부 전국 규모의 경기를 개최한 것으로, 동년 8월 제1회 전조선정구대회를 주최했다.<sup>75)</sup> 원산매일신문사와 원산체육협회에서는 이미 1924년부터 전조선정구대회를 개최해왔는데 비해,<sup>76)</sup> 이때 처음으로 전국 경기를 주최했으니 원산체육회의 재정이나 제반 환경이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 IV.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와 식민도시의 공간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제시기의 학제는 보통학교(조선인)와 소학교(일본인), 고등보통학교(조선인)와 중학교(일본인)로 민족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운동회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시합하고 경쟁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중등학교인 원산공립중학교와 원산공립고등여학교에 소수의 조선인이 재학하고 있었고 원산공립상업학교에는 재학생의 절반 정도가 조선인이었지만, 전체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접촉과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원산중학의 조선인 학생은<sup>77)</sup> 시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인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으니, 한편으로는 그들과 나란히 공부하는 데 대해 우쭐한 마음까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면 느끼지 못했을 지배받는 민족이란 쓰라림을 뼈저리게 느낀” ‘원중 내의 이단적 존재’인 그들은 “원중 안에

75) 「원산체육회 주최 全朝鮮庭球大會」, 『조선중앙일보』 1936년 7월 19일; 「원산체육회 주최 개인정구대회」, 『매일신보』 1936년 8월 9일. 이 대회는 조선중앙일보 지국의 후원으로 8월 9일 해수욕 철을 맞이하여 송도원 해수욕장 코트에서 개최되었다.

76) 「북조선대표 결정」, 『매일신보』 1929년 6월 19일.

77) 원산중학교는 소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학생의 진로를 위해 1921년 5년제 총 10학급으로 설립되었는데, 조선인 학생은 정원 100명 중 1명만 입학이 허용되었다. 이후 3명 정도 입학하다가 1926년 부협의회에서 조선인 학생을 위한 고등보통학교가 없으므로 조선인 입학 정원을 늘리도록 요구하면서 16명으로 증가되었다. 1928년 20명의 입학이 허용되었으나 다시 십여 명으로 줄었다(원산공립중학교동창회, 『원산중학창립60주년기념동창회지』, 1981, 21~23쪽, 45~46쪽, 56쪽).



또 하나의 우리들만의 단체”인 원중조선인친목회를 만들었다.<sup>78)</sup> 학교 내에서 철저한 타자였던 조선인 학생들은 “二千萬의 앞 길에 등대되려고 長德山 모진 폭풍 그 아래서 피눈물을 먹음고 배워나가는 이십여 인의 猛少年”이란 會歌를 부르며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상황은 원산공립고등여학교의 조선인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조선인 학생 모임인 ‘鮮友會’를 조직하여 매월 셋째 토요일에 모여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sup>79)</sup>

원산중학 유도부는 일본인 중학교만의 경기인 全鮮中學校柔道大會에 출전했으며,<sup>80)</sup> 스키부는 홋카이도·아오모리·나가노 등지에서 열리는 전 일본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요컨대 원산중학의 시합 경쟁자는 지역 단위에서만 아니라 전 조선에서도 나아가 제국 차원에서도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원산중학의 조선인 학생들은 스포츠 부문에서 정구선수로 혹은 유도선수로 활약하고 또는 개교기념 1만 미터 마라톤에서 교내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량을 발휘했으나 ‘鮮人’ ‘요보’로 불리는 타자들이었다.<sup>81)</sup> 이들이 제국의 운동장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학교의 학생 자격으로만 가능했으며, 일본인의 경쟁자로서가 아니었다.

원산체육회나 원산기독교청년회, 원산소년회 등의 사회단체가 주최한 원산지역 단위의 스포츠 대회도 조선인 학생들의 경연이었으며, 운동장에서 일본인 학생과 대면하여 겨루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78) 김형규, 「이름만 남은 元山中學」, 『수필의 향기』, 일조각, 1981, 230~233쪽; 『元山中學創立60周年紀念同窓會誌』, 1981, 22쪽, 50쪽, 46쪽. 이 會歌는 일본 白虎隊 곡조에 가사를 개사한 것이라고 한다. 친목회는 시나 작문을 게재한 會誌를 등사하여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친목회는 광주학생사건 때 학교 당국에 적발되어 중단되었으며 일부 학생은 정학 처벌을 받았다(『원산중학창립60주년기념동창회지』, 51쪽, 57쪽).

79) 安桂勳, 「잇을 수 없는 나의 學窓時節」, 『송도』, 27쪽; 李玉暉,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 같은 책, 36~37쪽. 이옥경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 헌병들이 눈치를 채고 따라 다녀 집회는 자주 무산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원산공립고등여학교의 조선인 신입생은 1933년 경우 100명 중 5명으로 원산중학보다 더 소수였다(「원산공립고등여학교 합격자명단」, 『동아일보』 1933년 4월 3일).

80) 藤原正義, 「開校の頃を偲ぶ記」, 『長德: 八十周年記念』, 元中長徳同窓會本部, 東京: 三朋印刷株式會社, 2000, 84쪽).

81) 李濟九, 「元中 草創期の先輩들」, 『원산중학창립60주년기념동창회지』, 48~49쪽; 노동설, 「피난민 제1호」, 같은 책, 57쪽.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간 시합, 사회단체 주최 청소년 경기는 거의 대부분 민족별로 개최되었다. 명칭은 ‘전원산 정구대회’ ‘전원산 육상경기대회’이지만, 실제로는 ‘전원산 조선인 정구대회’ ‘전원산 조선인 육상경기대회’였으니, 운동장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운동회의 개최 장소는 주로 단오절 씨름대회가 열리는 광석동 광장과 보통학교 운동장이었다. 반면 일본인 측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는 府民運動大會의 장소는 대개 원산중학교였다.<sup>82)</sup> 일본인들의 부민운동회는 천장절,<sup>83)</sup> 개항기념일(5.23)에 주로 열렸다.<sup>84)</sup> 일본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 행사의 성격 상 조선인 대중의 참여는 별로 없었다. 개항기념일에는 관공서가 휴업하고 元山神社에서 大祭式과 神幸祭 등 부청 차원의 공식적인 기념식과 제전이 열렸으며 각종 假裝行列, 提燈行列, 旗行列 등 여러 가지 여흥과 사진전시회가 마련되었다.<sup>85)</sup> 제전집행위원이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고, 행사 내

82) 「원산시민대운동」, 『매일신보』 1920년 10월 26일; 「원산부민운동」, 『동아일보』 1932년 9월 29일.

83) 천장절축하시민운동회(1920.10.31)의 경기종목은 일반인 경기와 특수 경기로 구분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는 2백 미터 도보경주, 1천 미터 경주, 장애물 경기, 二人三脚 등 총 20종이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雨中跛足競争, 俄夫婦, 風船破行(단체), 金魚 競争, 鷄追(닭 쫓기), 鱈ツカミ(미꾸라지 잡기), 노동 경쟁, 罐鉤 경쟁 등 경기 내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독특한 종목이 많았다. 특수 경기는 군대의 무장경쟁, 有志들의 야구시합, 소학생의 마라톤, 각 관청 은행 회사, 운송업·요리점·무역상·잡화상·油商·이발업·포목상 등 직능별 업종별로 5인 1조로 실시하는 단체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1919년 천장절에는 원산점원위로대운동회가 원산매일신문사 주최로 幸町에서 열렸다(「지방통신: 元山市民大運動」, 「원산」, 『매일신보』 1919년 11월 8일, 1920년 10월 26일).

84) 원산지역에서는 제국 차원에서 건국기념일인 紀元節(2. 11), 국왕 생일인 天長節, 메이저절(11. 3) 등과 지역 차원에서 개항기념일을 주요하게 기념했다. 이는 인천 지역의 기념의례와 비슷하다(오미일, 「전시체제가 지역사회의 기념(일)의례와 동원의 일상-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람』 40, 2011 참조).

85) 「원산개항기념제」, 「개항기념과 각 관청」, 「원산개항기념 祝賀準備 紛忙」, 「開港紀念展」, 『매일신보』 1915년 5월 25일, 1916년 5월 24일, 1930년 5월 21일, 5월 26일; 「원산개항기념제」, 『동아일보』 1920년 5월 22일. 사진전시회의 내용은 정일전쟁, 러일전쟁 당시의 사진, 거류민단 관련 기록 등 일본인의 조선 점령과

용도 대개 일본인 위주의 행사였다.<sup>86)</sup> 일본 국기가 나부끼고 燈籠이 반짝이며, 바다에서는 海神 金比羅宮의 神輿를 모시는 海開祭와 축항 방파제 부근에서는 원산매일신문사 주최 煙火大會가 열리는 개항기념일의 원산 거리는 식민도시의 전형적인 풍경이었다.<sup>87)</sup>

하지만 개항기념일에 열리는 마라톤대회에는 조선인이 다수 참여하기도 했다. 일본인 언론인 원산매일신문사가 개항기념일에 주최하는 ‘북산 마라톤경주대회’<sup>88)</sup>는 개항 35주년이 되는 1915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매년 열렸다.<sup>89)</sup> 1922년 6조로 나누어 행한 마라톤 예선대회에서 1등은 모두 조선인이었다.<sup>90)</sup> 1923년 7회 마라톤대회에서는 보통학교 선수의 소마라톤으로 대회의 막을 열었다는 것으로 보아 일반 조선인뿐만 아니라 보통학교 학생도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sup>91)</sup> 한편 원산부에서 주최하여 매년 10월 초에 열리는 원산체육데이는 各町 總代, 각 학교 직원

지역 ‘개발’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 86) 1920년도의 祭典執行委員을 보면 委員總長: 本岡卯之吉, 委員副長: 古賀庄太郎, 總係長: 石如房吉, 神輿警護係: 島崎松二 외 5명, 行列及警護係: 竹尾友彌 외 5명, 設備係: 柏井英太郎 외 5명, 調度係: 小田村外 5명, 救護係: 戶島醫師 외 3명, 會計係: 小牧四郎助 외 5명, 서무기록계: 猪伏臺太郎 외 3명이었다.
- 87) 三笑生, 「元山行」(三), 『매일신보』 1922년 8월 13일. 이는 원산부에서 개항50주년기념사업으로 원산신사의 이전 개축, 개항기념비 건립, 공로자 표창, 거류민단의 원산개척사를 담은 郷土誌 편찬, 물산공진회 개최 등 일본인 위주로 추진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元山開港五十周年記念大事業計劃」, 『부산일보』 1927년 6월 4일).
- 88) 廣田駒次郎, 『元山案内』, 元山毎日新聞 編輯局, 1917, 119쪽. 또한 원산매일신문사는 매년은 아니지만, 북조선정구선수권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원산서 개최된 三大運動會」, 『조선일보』 1934년 10월 22일).
- 89) 「元山開港紀念」, 「元山開港紀念마라손大會」, 『매일신보』 1915년 5월 22일, 1932년 5월 27일; 「개항기념대운동회」, 「市民大運動會詳報」, 『동아일보』 1921년 5월 7일, 5월 13일.
- 90) 「마라손競走豫選」, 『동아일보』 1922년 5월 23일. 참고로 1921년 개항기념 마라톤대회에 13일까지의 예선 신청자 27명 가운데 조선인은 20명이었다(「市民大運動會詳報」, 『동아일보』 1921년 5월 13일).
- 91) 「대성황의 경주」, 『조선일보』 1923년 5월 31일. 1932년 마라톤대회의 8천 미터 경주에서 2, 3, 4, 5등 모두 조선인이었고, 「町洞릴레이」에서는 1착이 榮町, 2착이 廣石洞으로 모두 조선인이었다(「원산개항기념마라손대회」, 『매일신보』 1932년 5월 27일).

과 원산체육회, 원산체육협회가 함께 협의하여 행사를 준비했으므로 형식적으로 조선인도 함께 참여했다.<sup>9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 학교운동회는 학제 분리로 민족적으로 분리되어 개최되었으며,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전원산대회’라 하더라도 민족별로 각기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운동장에서 대면하여 시합하고 교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조선인과 일본인이 운동장에서 만나는 때는 개항기념일과 부민대회였는데, 조선인의 참가 범주가 시민운동회에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접촉은 국부적이었다.

‘원산대회’는 쏘 元山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원산조선인대회’이거나 ‘원산일본인대회’였다. 후원기관 역시 조선인 대회의 경우 주로 홍보를 지원하는 동아일보·조선일보·중외일보 지국과 개벽·신생활사지사, 그리고 비용을 조달해주는 객주조합·어상조합과 같은 각종 경제단체였고, 일본인 대회의 경우 원산매일신문사·매일신보 지국·일본인 단체 등이었다. ‘쏘元山大會’는 주최자와 선수, 관람자뿐만 아니라 후원세력까지 각기 민족별로 분절되어 개최되었던 것이다. 이는 체육 관련 사회단체가 원산체육회(조선인)와 원산체육협회(일본인)로 양립되어 있었던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민족적 분리는 인종적 분리와는 다른 차원이었다. 즉 원산의 조선인들은 오히려 서양인들과는 운동장에서 만나 스포츠를 통해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대표적인 예로 1920년 8월 초 원산 시외 두남리 명사십리에 피서 온 서양인들이 야구 경기를 하였는데 관람자가 수백 명이었다고 한다.<sup>93)</sup> 원산청년회 운동부는 이 서양인들과 야구 시합을 열었는데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겼다.<sup>94)</sup>

92) 「원산체육데이」, 「원산체육데이 1일부터 3일까지」, 『매일신보』 1926년 9월 15일, 29일. 첫째 날은 神宮競技 예선, 둘째 날은 검도·유도대회, 셋째 날은 각 町洞 경기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우승자가 원산경찰서·영흥경찰서·학교교직원단인 것으로 보아 일반 시민보다 관공서, 町洞 대항 경기여서 일반 조선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시민운동회는 아니었던 것 같다(「원산의 체육일」, 『매일신보』 1926년 10월 5일).

93) 「서양인 야구경쟁」, 『동아일보』 1920년 8월 8일.

94) 「원산 對 서양인 야구」, 『동아일보』 1920년 8월 13일. 당시 야구의 본 고장 사람

조선인들이 서양인들과 자주 축구를 한 곳은 명사십리였다. 원산지역은 휴식공간조차도 구분되어 있었으니<sup>95)</sup> 일본인 시가의 북쪽에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은 송도원이 일본인들의 유원지였던 반면, 조선인 시가의 남쪽에 위치한 명사십리는 풍광이 좋아 외국인 별장지대가 있었다.<sup>96)</sup> 조선인 유지들이 명사십리 한 쪽에 바라크 건물로 탈의실과 수동식 펌프로 된 세면장을 만든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들은 휴식공간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다.<sup>97)</sup> 원산지역 내 거의 모든 사립학교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서양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한 동일한 휴양공간에서 접촉하는 점이 이들과 시합하게 된 이면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는 장소를 통해 원산지역에서 식민 지배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맥락화 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식민지 도시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차별과 억압은 공간적 분절로 가시화되어 제일 먼저 거주공간(=장소)의 격리로 나타난다.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식민도시의 공간 분절이란 상징적 명제를 가장 잘 보여준다. 즉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도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동회가 열리는 장소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절되었다. 심지어

---

인 미국인과의 야구시합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피서 차 원산에 온, 중앙기독교청년회의 야구단 일행이 원산 거주 4백여 명의 서양인 가운데 가장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로 선발하여 조직된 야구단과 시합을 벌인 일도 있었다(「서양인과 對戰코자 중앙군 원정」, 『조선일보』 1923년 8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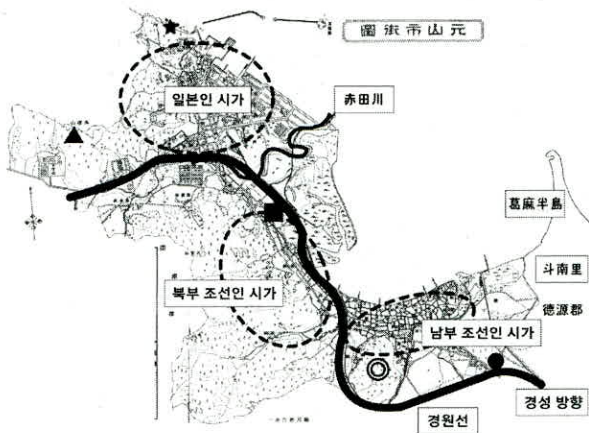
- 95) “부당국에서는 조선인이 적은 松濤園에는 해마다 많은 경비를 들여 온갖 시설에 분주타가 그도 부족한 바 있었던지 최근에는 송도원 경역을 府營으로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조선인 거주지인 명사십리에는 지금까지 조금도 성의를 표치 않아 불평이 많은데...”(「絶勝 明沙十里에」, 『동아일보』 1934년 4월 8일).

- 96) 「八克園, 『關北探勝記』, 『매일신보』 1919년 9월 9일.

“葛麻의 외인촌에는 目下에 英米人 184명이 來遊하는 중인데 豫히 설치 중이던 ‘골후링크’도 去十九日에 完成되얏슴으로 昨今의 災天下에서 맹연습을 행하는 터인데...”(「元山府下 外人村의 殷賑」, 『매일신보』 1925년 7월 31일). 이 외인촌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폐쇄되었다.

- 97) 김형규, 앞의 책, 58쪽. 김형규는 원산중학 재학 중에는 송도원에서 수영을 했으나 경성제대로 진학한 후에는 귀향하면 심리적으로 송도원에 가기가 꺼려져 명사십리에서 여름을 보냈다고 한다.

<지도 1> 원산 공간의 민족별 배열



비고: 高尾新友衛門, 『大陸發展策より見たる元山港』, 원산: 東書店, 1922를 저본으로 하여 작성.

★ 중국영사관, ■ 원산역, ● 갈마역, ▲ 長徳山, ◎ 南山

마라톤 코스 조차 민족별 공간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sup>98)</sup> 장소는 사람이 나 사물을 병치하거나 통합하는 기능이 있으며 때문에 삶의 양식이라고도 한다.<sup>99)</sup> 그런 점에서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원산지역 생활세계에 내재한 식민 지배의 공간적 메타포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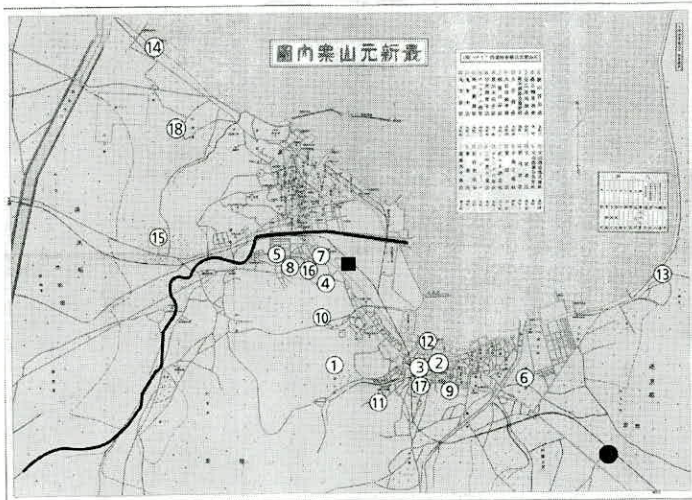
<지도 1>에서 보듯이 원산지역 거주공간을 민족별로 구분해본다면, 개항 후 적전천을 경계로 동남쪽 조선인 시가(일본인들은 이곳을 통칭 ‘元山里’라고 부름<sup>100)</sup>)와 일본인 거류지로부터 발전한 시가(조선인들은

98) 예를 들어 원산중학교는 개교기념일인 5월 5일에는 해마다 전교생마라톤대회를 실시했다. 그 코스를 보면 운동장을 나서서 적전천 제방을 따라 송도원 해안을 경유하여 시가지로 들어와 平元道路를 따라 북상하여 다시 교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일본인 시가와 조선인 시가를 경계짓는 적전천을 넘어 가지 않는 경로였다(藤原正義, 『開岐の頃を偲ぶ記』, 『長徳: 八十周年記念』, 元中長徳同窓會本部, 2000, 85쪽; 山中一正, 『元中を思う』, 같은 책, 329쪽).

99) 마루타 하지메 지음, 박화리·윤상현 역음, 『장소론』, 심산, 2011, 63쪽.

100) 笠井久義著, 『元山市街圖』, 『元山の想い出』, 1981(山口美代子 編, 『あの夏, 山河を越え-いま友の絆』, 元山高女第24回卒業クラス會, 横浜: 原口印刷株式會社, 1998에서 재인용); 金春岡, 『元山短評』, 『개벽』 55호, 1925년 1월.

〈지도 2〉 원산지역 스포츠 이벤트 장소



자료: 金東澈製圖者·森脇毅 저작 겸 발행인, 『最新元山案內圖』, 共榮商會, 1938.

①廣石洞 ②同樂座(上里 1동) ③원산청년회 운동장(南山洞) ④石礮洞 ⑤館橋洞 ⑥場村洞 ⑦본정 5정목 ⑧榮町 ⑨제1공립보통학교(龍洞) ⑩제2공립보통학교(1927년 이후 銘石洞) ⑪樓氏女子高等普通學校(山祭洞) ⑫해안매립광장 ⑬명사십리 ⑭松濤園 해수욕장 ⑮ 원산공립중학교 ⑯ 원산공립고등학교(館橋洞) ⑰ 원산공립상업학교(新興洞) ⑱ 공설운동장(松興里)

비고: —적전천, ■ 원산역, ● 갈마역

이곳을 ‘館동네’라고 부름<sup>101)</sup>, 그리고 일본인 거주지의 북쪽에 위치한 중국인 거주지(支那町)<sup>102)</sup>, 남부 조선인 시가의 동쪽 德源郡 斗南里에 위치한 서양인 별장지대(갈마반도 부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인 시가는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져 발달한 지형 상 시가가 확장되면서 경원선 철도 건설목을 경계로 남/북(상/하)으로 구분되었다. 索戰大會를 할 때에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편을 정했고 부협의원 시민공인후보를 선출할 때에

101) 김학철, 앞의 책, 50쪽; 김형규, 앞의 책, 58쪽; 元山市史編纂委員會, 『元山市史』, 三信文化社, 1968, 28쪽.

102) 支那町은 1927년 4월 市區 개정에 의해 春日町에 병합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법적 告示에 의한 공식적인 명칭 변경은 193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元山町名改稱』, 『매일신보』 1927년 4월 22일; 『朝鮮總督府 咸鏡南道告示 第46號, 元山府內町洞ノ名稱及區域ヲ昭和六年七月一日ヨリ左ノ通變更ス』, 『조선총독부관보』 제1299호, 1931년 5월 8일.

도 남북 각기 3인씩 정했다.<sup>103)</sup>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를 살펴보면, 먼저 단오절과 같은 전통기념일에 각회대회가 자주 열렸던 곳은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나듯이 1910년대~1920년대 초에는 廣石洞 운동장, 同樂座, 원산청년회 앞 운동장 등이었으며, 이후 사회단체가 주최하고 언론사의 홍보로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넓은 원산역전 광장, 해안매축지 광장으로 옮겨갔다.

먼저 광석동 운동장(<지도 2>의 ①)은 각회대회와 시민운동회가 가장 자주 열렸던 장소였다. 원산 출신으로 조선의용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연변 작가 김학철은 “해마다 단오날이면 광석동 뒷 산 밑 놀이터에서 씨름판이 벌어지곤 했다”<sup>104)</sup>고 회상했다. 광석동은 단오절 씨름대회가 열리는 곳이자 시민운동회가 열리는 장소였다. 광석동은 북부 조선인 시가와 남부 조선인 시가의 중간 위치란 입지로 접근성이 좋아 1910년대~1920년대 중반에 동 연합각회대회나 시민운동회가 자주 열렸던 것이다.

조선인 거주지인 上里 1동에 위치한 동락좌(<지도 2>의 ②)는 종종 각회대회가 열렸던 곳인데 원산청년회 창립총회가 열렸던 장소이기도 했다.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대중 계몽이나 기타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素人劇이나 연극, 樂劇大會가 개최되어<sup>105)</sup> 조선인들의 문화·예술 센터라고 할 수 있었다.

원산청년회 앞 운동장(<지도 2>의 ③)은 남산동에 위치하며 테니스 코트가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이었다. 협소하기는 했으나 원산청년회의 체육부가 주관하는 소규모 시합이 자주 열렸던 곳이다.

각회대회가 가장 많이 열린 석우동(<지도 2>의 ④)은 원산역이 위치

103) 오미일, 「일제시기 조선인 자본가층의 결집과 ‘지역변영’ 단체의 조직」, 『한국사 연구』 171, 2015, 337쪽.

104) 김학철, 앞의 책, 23쪽. 청년회 앞 운동장은 평상시에는 테니스 코트였는데 단오절에는 여기에서 씨름판이 열렸다.

105) 「天聽地說」, 『매일신보』 1920년 4월 24일; 「원산의 동우극」, 「원산소년악극대회」, 『동아일보』 1921년 8월 15일, 1925년 12월 29일; 「元山苦學生 素人劇」, 『조선일보』 1923년 12월 14일.



한 곳으로 일본인 시가와 조선인 시가를 잇는 중간지점이었다. 따라서 각회대회의 장소는 대부분 원산역전 광장과 정차장 뒤 모래사장이었다 (<표 1>과 <표 2> 참조). 관교동(<지도 2>의 ⑤)은 영정과 함께 적전천을 경계로 일본인 시가에 인접한 곳이다. 관교동 유지들이 1921년 경 석우동 유지들과 함께 원산사설학술강습소를 설립하고<sup>106)</sup> 보통학과를 교수하는 등 문화운동에 나선 점을 생각할 때 각회대회도 조선인 사회를 아우르는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정5정목(<지도 2>의 ⑦)과 영정(⑧)은 원래 적전천 남쪽 조선인 거주지인데 일본인 시가가 팽창하면서 雜居地가 된 곳이다. 행정구역 상 町으로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었다.<sup>107)</sup> 장춘동(<지도 2>의 ⑥)은 전통 원산의 변화지는 아니었으나 가축시장과 屠場이 있어 부근에 검역소가 세워진 곳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인 시가의 중심지나 시장이 위치하여 상인들의 거주지인 마을에서 각회대회가 자주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민운동회가 자주 개최된 장소는 초기에는 광석동 광장이었으나 이후 공립보통학교 운동장과 해안매립 광장에서 주로 열렸다(<표 3> 참조). 공립보통학교 운동장은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좀 더 나은 편이어서 시민운동회가 많이 개최되었던 것이다. 1927년 조성된 해안 매립 광장은 조선인 마을의 중간 지점인데다 시장이 위치하고 평지가 넓어 대중적인 공공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인의 스포츠 이벤트 장소는 주로 조선인 시가의 공터, 공립보통학교 운동장, 해안매립광장 등지로 각기 생활기반과 역사에 근거한 입지였다. 공설운동장(<지도 2>의 ⑱)이 일부 완공되어 1928년 11월 개장했지만,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는 부민운동대회가 일본인 대상 각종 스포츠 경기의 공간으로 전유되었다.<sup>108)</sup> 일본인 거

106) 「원산학술강습 부활」, 『동아일보』 1922년 12월 24일.

107) 1936년 말경 본정 5정목의 호구수는 일본인 90호/ 394명, 조선인 476호/ 2,235명이었다. 영정은 일본인 218호/ 1,137명, 조선인 1,038호/ 4,653명이었다(김원록, 『朝鮮要覽』, 1937, 23~24쪽, 27~28쪽).

108) 「元山公設運動場 十四日開場式舉行」, 「元山府民運動 來二日 公設運動場에서」, 『동아일보』 1928년 11월 16일, 1932년 9월 29일.

주지의 동북쪽 외곽 松興里<sup>109)</sup> 위치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시민운동 회나 각회대회가 열리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공설운동장의 이용은 요원할 뿐이었다. 공설운동장은 식민주의의 영토 지배와 공간 배치가 식민지(피지배)대중에게 차별과 불평등으로 기제화되는 저간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일제시기 원산지역 조선인 사회의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단오절에 열리는 각회대회와 학교운동회, 그리고 시민운동회였다. 원산 스포츠 경기는 체육 단체가 원산체육회와 원산체육협회로 양립되어 있었던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주최자뿐만 아니라 후원기관, 참관자까지 민족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학교운동회가 학제 분리로 인해 민족별로 분리되어 개최되었으므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운동장에서 시합하며 경쟁하거나 혹은 교류하는 일은 드물었다. 일반 대중의 경우 일본인과 운동장에서 만나는 때는 개항기념일과 부민대회였는데, 시민운동회에 비교해 조선인의 참가 범주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 접촉은 국부적이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각종 경기가 민족적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을 수 있지만, 지역 차원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원산대회<sup>10)</sup>는 쏘 元山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원산조선인대회’이거나 ‘원산일본인대회’였다. 원산지역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자의 운동장에서 ‘전원산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단오절의 각회대회와 시민운동회가 자주 열렸던 곳은 광석동 운동장, 활동사진관(영화관) 겸 공연장인 同樂座, 원산청년회 앞 운동장 등이었다. 이후 사회단체가 주최하고 언론사의 홍보로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109) 송흥리는 원래 德源郡 赤田面에 속했으나, 1933년 10월 덕원군 적전면·縣面의 일부가 편입된 원산부 구역 확장 시 臥牛里·松下里·新豊里 등과 함께 원산부로 편입되었다(『朝鮮總督府咸鏡南道告示 第99號』, 『조선총독부관보』 제2031호, 1933년 10월 14일).

더욱 넓은 공립보통학교 운동장이나 원산역전 광장, 해안매축지 광장으로 옮겨갔다.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식민도시의 공간 분절이란 상징적 명제를 가장 잘 보여준다. 즉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도 민족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운동회가 열리는 장소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절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산중학의 개교기념마라톤 코스조차 민족별 공간의 경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적어도 스포츠를 통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민족주의적 경쟁이나 교류가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문 풍경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점에서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원산지역 생활세계에 내재한 식민 지배의 공간적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시가와 조선인 시가의 경계 지역에서 상당한 잡거가 진행되었고, 또한 일부 일본인 시가에서 조선인이, 일부 조선인 시가에서 일본인이 잡거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市區 개정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간의 분절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1928년 개장된 공설운동장은 일본인 시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일본인의 공간으로 전유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식민주의에 의한 차별의 공간화라고 할 것이다. 조선인들이 원산공설운동장이라 부르지 말고 ‘일인 공설운동장’으로 부르라고 비판하며, 조선인 시가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은 일제시기 공적 공간을 둘러싼 식민주의자와 식민지인 사이의 갈등의 심연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 참 고 문 헌

-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보』  
西田常三郎 편, 『東朝鮮 一名 元山案内』, 元山毎日新聞社, 1910.  
石井彦三, 『元山案内』, 원산상업회의소, 1914.  
金二坤, 「元山港耶蘇教會內的 教育」, 『崇實學報』 1호, 1915년 1월.  
廣田駒次郎, 『元山案内』, 元山毎日新聞編輯局, 1917.  
廣田駒次郎 編, 『元山之人』, 東京: 東朝鮮通信社, 1927.  
金元錄, 『元山要覽』, 元山要覽編輯會, 1937.  
金東弼(製圖者)·森脇毅(著作兼發行人), 「最新元山案内圖」, 共榮商會, 1938.  
金亨奎, 『隨筆의 香氣』, 일조각, 1981.  
원산공립중학교동창회, 『元山中學創立60周年紀念同窓會誌』, 1981,  
김학철, 『김학철자서전, 최후의 분대장』, 문학과지성사, 1995.  
元山公立商業學校同窓會, 『明沙』, 서울: 正文社, 1996.  
元山公立高等女學校同窓會, 『松濤』, 1999.  
元山樓氏高等女學校總同窓會, 『常綠: 樓氏高女100年誌』, 2003.  
井上三治·稻田敦·松下昭·村上雄昭 編, 『長徳: 八十周年記念』, 元山公立中學校 元  
中長徳同窓會本部, 東京: 三朋印刷株式會社, 2000.  
元山市史編纂委員會, 『元山市史』, 三信文化社, 1968.  
원산시민회 홈페이지 <http://www.wonsan.org/main.htm>
- 요시미 순야 외 지음, 이태문 옮김, 『운동회 근대의 신체』, 논형, 2007.  
천정환,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뽕을 차라: 스포츠 민족주의와 식민지 근대』, 푸른  
역사, 2010.  
신주백, 「체육교육의 군사화와 강제된 건강」,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정  
근식·공제욱 편, 문화과학사, 2006.  
김성학, 「근대 학교운동회의 탄생: 花柳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31, 2009.  
김현숙, 「대한제국기 운동회의 기능과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 48, 2010.  
정예지,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연합운동회」, 『만주연구』 12, 2011.  
이동진, 「간도의 조선인 축구」, 『동북아역사논총』 40, 2013.  
박환, 「근대 수원지역 학교운동회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2014.

오미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사회와 지역 단체-원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4, 2015.

오미일, 「일제시기 조선인 자본가층의 결집과 ‘지역 번영’ 단체의 조직-1920년대 원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71호, 2015.

Abstract

Sports Events in Open-Port Cities and Geography  
of the Nation With a Focus on the Wonsan A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Oh, Mi-il\*

The major sports events enjoyed by the community of Koreans in the Wonsan a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cluded a ssireum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competition held during the Dano festival, school sports meets, and citizens' sports meets. As seen by the dual structure of professional sports associations in Wonsan with the city had Wonsan Athletic Organization and the Wonsan Athletic Association, sports events in the port city national division from the organizers to sponsor institutions to spectators. Since school meets were held according to the school systems separated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t was rare for students from these two ethnic communities to face and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the stadium. The occasions when ordinary Korean citizens encountered Japanese residents were the Open Port Anniversary and Citizens' Meet, but the scope of contact remained local as only a limited group of Koreans participated in those events, compared to citizens' sports meets.

Although a number of sports events might have been held as

---

\* HK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competition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at the nationwide level, the situation at a more local level showed a different tendency. The Wonsan Congress did not in fact encompass the entire region; instead, it was mostly in the form of “Korean Congress in Wonsan” or “Japanese Congress in Wonsan.”

The wrestling matches and citizens’ sports meets during the Dano festival were often held in the stadium located in Gwangseok-dong, in Dongrakjwa (used as a motion-picture theater and an auditorium), and in the stadium in front of the Wonsan Youth Association premises. Later, as social organizations began to organize those events and their scale grew larger as a result of media publicity, the venue moved to larger schoolyards of public schools, the square in front of Wonsan Station, and the open space in the coastal reclaimed land.

The venues of sports events clearly demonstrate the symbolic proposition about spatial division within a colonial city. Since spectators as well as event organizers and participating athletes were divided into two ethnic groups, the venues for the sports gatherings were strictly divided in terms of location. In this regard, the venues for sports events can serve as a spatial metaphor of colonial rule inherent in the world of life in Wonsan.

Key Words : Open Port City, Wonsan, Sports Event, Athletic Meeting, Wonsan Athletic Organization, Locality History Narrative

교신 : 오미일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815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E-mail: omil@pusan.ac.kr)

논문투고일 2016. 01. 04.

심사완료일 2016. 02. 11.

게재확정일 2016. 02. 12.